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35년의 풍부한 경험,
 미주 전체 탑 브로커
 anna@kstadiumrealty.com
 617.780.1675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보스톤이 대졸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최고의 도시인 이유는 전문직의 높은 연봉도 원인이지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펜웨이파크 경기나 비어가든 모임을 즐길 수 있는 도시라는 삶의 질이 꼽혔다. 사진은 펜웨이 인근에서 보스톤마라톤을 응원하는 젊은 여성들

집값 비싸도 보스톤 여전히 인기... 대졸 전문직들 선호 도시 3위

트럼프 냉대에도 불구하고 레드핀·글래스도어 분석서 대도시권 3위 올라
 생활 주거비 부담은 최하위권, 높은 초봉 다양한 일자리가 순위 올려
 워싱턴, 오마하 이어...뉴욕, 샌프란시스코, LA 등은 순위 진입 못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집값과 생활비 부담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보스톤 대도시권(Greater Boston)이 미국 대졸 직후의 초년 전문직 종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도시3위에 올랐다.

부동산 업체 레드핀과 구인구직 플랫폼 글래스도어가 200개 이상 미국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경력 기회, 도시 생활의 질을

〈전체 기사 읽기〉

종합 평가한 결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권 가운데서는 워싱턴 D.C.가 1위, 오마하가 2위, 보스톤이 3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워싱턴 D.C.에 대해 "탄탄한 초급 일자리 시장과 높은 연봉을 제공하고, 주택비가 저렴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른 주요 해안 도시들에 비해서는 접근성이 나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2위는 오마하(Omaha)로, 초봉만으로도 졸업생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가 형성돼 있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보스톤의 매력은 높은 연봉에서 시작된다. 이번 분석에서 사회초년생 평균 연봉은 8만26달러로 집계됐으며 상위 10개 대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초봉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보스톤의 대표 진출 분야로 테크를 꼽았고, "바이오 테크, 헬스케어, 교육, 연구 부문 일자리도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레드핀은 "보스톤이 명문대 졸업생을 끌어들이는 기업과 스타트업 문화, 보행 친화성, 대중교통 접근성까지 갖춘 점이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삶의 질도 보스톤의 강점으로 꼽혔다. 이번 분석에서 보스톤은 삶의 질 부문 2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식당, 공원, 스포츠 문화, 대중교통, 도보 이동 편의성이 젊은 직장인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펜웨이파크 경기나 비어가든 모임을 즐길 수 있는 도시"라고 보스톤을 묘사했다.

그러나 높은 매력만큼 비용 부담도 크다. 보스톤의 전형적인 스타터홈(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 집) 가격은 46만 달러였고, 사회초년생이 20% 계약금을 모으는 데 걸리는 기간은 6년 8개월로 나타났다. 또 월 모기지 상환액은 소득의 45.3%, 월세는 소득의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54개 대도시권 가운데 ▶▶8면으로 계속

130회 보스톤마라톤, 존 코리어 코스 신기록으로 2연패... 새론 로케디도 2년 연속 우승

남자부 2시간 1분 52초로 2011년 기록 경신
 여자부 새론 로케디 2시간 18분 51초
 휠체어부 마르셀 후그·이든 레인보우-쿠퍼 정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화씨 45도의 온도와 가벼운 순풍의 힘을 받은 130회 보스톤마라톤이 기록의 날로 이어졌다. 케냐의 존 코리어는 20일 남자부에서 2시간 1분 52초로 우승하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제프리 무타이가 2011년 세운 2시간 3

분 2초의 코스 기록을 1분 10초 앞당겼다. 여자부에서도 케냐의 새론 로케디가 2년 연속 우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로케디는 2시간 18분 51초로 결승선을 통과해 지난해에 이어 다시 우승했다. 자신의 2025년 코스 기록 2시간 17분 22초에는 못 미쳤지만, 대회 역사상 두 번째로 빠른 우승 기록이었다.

휠체어부에서는 스위스의 마르셀 후그가 1시간 16분 6초로 우승해 보스톤에서 통산 9번째 정상에 올랐고, 영국의 이든 레인보우-

쿠퍼는 여자 휠체어부에서 1시간 30분 51초로 최근 3년 사이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후그는 이 부문 최다 우승 기록인 에른스트 판 다이크의 10회 우승에 1승 차로 다가섰다. 남자부 선두권은 초반부터 코스 기록 페이스에 가깝게 레이스를 끌고 갔고, 중반까지 레미 베르하누와 밀케샤 멩게샤 등이 선두권을 형성했다. 그러나 코리어는 오르막 지점인 하트브레이크 힐이 가까워진 지점에서 승부를 걸었고, 20마일 지점 무렵 사실상 추격

〈전체 기사 읽기〉

을 허용하지 않는 독주 체제를 만들었다.

2위는 탄자니아의 알폰스 펠릭스 심부가 2시간 2분 47초로 차지했고, 케냐의 벤슨 키프 로토가 2시간 2분 50초로 3위에 올랐다. 이 두 기록 역시 종전 보스톤 코스 기록보다 더 빨랐다. 코리어는 경기 뒤 "타이틀 방어는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렇게 빠르게 뛴 줄은 몰랐다"며 "오랫동안 코스 기록을 목표로 해왔는데 마침내 이루게 ▶▶10면으로 계속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턴 K-평화 문화축제, 5월 9일 카플리 스퀘어에서 개최

청소년 1분 평화스피치 참가자 신청받아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 K-평화 문화축제(Boston K-Peace Culture Festival)'가 오는 5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보스턴 트리니티 교회 앞 코플리 스퀘어(Copley Square)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K-팝과

한국 전통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공감과 연대를 확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협의회(이하 평통 보스턴협의회)가 주최하고 뉴잉글랜드 코리아 피스 캠페인(NEKPC)이 공동 주관하며 주보스턴총영사관이 후원한

다. 문화 공연 무대에는 베이커 스쿨(Baker School) 학생들이 부채춤과 K-팝 공연을 선보이고, 노스이스턴 대학교(Northeastern University) K-팝 팀이 무대에 오른다. 평통 보스턴협의회 위원들이 준비한 한국무용과 난타 공연도 이어질 예정이다.

프로그램의 핵심 중 하나는 청소년 1분 평화스피치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1분 분량으로 발표하는 시간으로, 모든 학년의 학생이 참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반도 평화 메시지 전시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부스가 운영된다.

청소년 평화스피치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구글 폼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신청 링크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1XMzyt7Sumex-qJl8uWZ5N_mhc0zSvZj7t7A7FnV49P8IIJw/viewform이다.

코플리 스퀘어는 보스턴 도심의 대표적인 공공 광장으로, 보스턴 마라톤 결승점과 트리니티 교회, 보스턴 공립도서관 등이 둘러싼 자리다. 주말 오후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오가는 곳이기도 하다.

bostonkorean@hotmail.com

Boston K-Peace Culture Festival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Boston Chapter

보스턴 K-평화 문화축제

일시: 2026년 5월 9일(토) · 오후 2시 - 4시
장소: 보스턴 트리니티 교회 앞 코플리 스퀘어(Copley Square) 우천시, 730 Main St. Waltham, MA

주요 프로그램

- 문화공연
Baker School 부채춤/K-Pop 댄스
Northeastern University K-Pop 댄스
Didim Chum Dance Company 태평무
아리랑과 날리리아 난타 공연
- 한반도 평화 메시지 전시 및 시민 참여 활동
- 청소년 1분 평화 스피치 (모든 학년 참여 가능)

보스턴 산악회, 5월 2일 무실라우크산 8차 정기 산행

〈보스턴=보스턴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턴 산악회가 오는 5월 2일 토요일 뉴햄프셔주 워렌(Warren) 지역의 무실라우크 마운틴(Mt. Moosilauke, 해발 4,802피트) 산행을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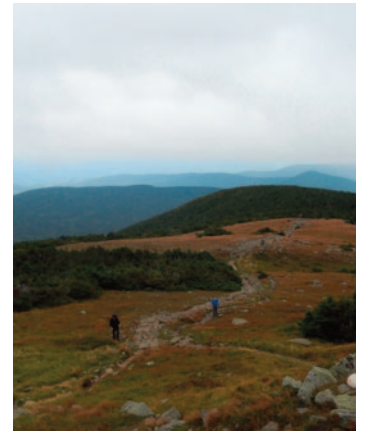
이번 산행은 고지 브룩 트레일(Gorge Brook Trail)을 따라 왕복 7.2마일, 오름높이 2,800피트 코스로 진행되며, 소요 시간은 약 6시간 정도다. 난이도는 5단계 척도법 기준 3-4단계 보통에 해당한다.

준비물로 등산화 착용은 필수다. 배낭, 방풍의, 우의, 장갑, 모자, 스틱, 식수, 간편 중식 등도 준비해야 한다. 면으로 된 티셔츠, 청바지는 삼가고 드라이핏(Dry Fit)과 같은 기능성의류를 착용이 권장된다. 백팩은 뒤로 넘어질 때 보호 역할을 하므로 각자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정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고 기온 변화가 크므로 장갑과 바람막이, 모자 달린 재킷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산악회 측은 몸살이나 감기 기운이 있는 경우 산행을 취소해줄 것을 당부했다.

집결 장소는 뉴햄프셔주 고속도로 I-93번 2번 출구(Exit 2)에 위치한 파크 앤 라이드(Park & Ride)이

〈전체 기사 읽기〉



며, 출발 시각은 오전 7시다. 차비는 20달러다.

산행 신청 마감은 4월 30일 오후 6시다. 신청 시에는 A, B, C 중 원하는 조와 차량 제공 여부(차만 제공, 또는 직접 운전 가능)를 밝혀야 하며, 처음 참가하는 경우 연락처를 함께 남겨야 한다. 신청 후 부득이 불참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연락을 해야 한다.

산행지는 당일 변경될 수 있으며, 날씨 사정으로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산행 전날 반드시 웹사이트를 확인해야 한다.

문의는 전화 617-780-9588(들꽃향기)로 하면 된다. 산악회 웹사이트는 <http://cafe.daum.net/boston-mountaineer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설렁탕
겨울 특선 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JUNG KWAN JANG

정관장에서 만든 믿을 수 있는 공진단
정관장 “황진단”

Korean Red Ginseng Powder	1,360 mg
Korean Red Ginseng Extract	80 mg
Phellinus Linteus Extract Powder	120 mg
Deer Antler Extract Powder	120 mg
Korean Angelica Extract	120 mg
Cornus Officinalis Powder	120 mg

정관장 황진단은 홍삼총 상위 2%로 선별된 지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녹용, 참당귀, 산수유, 상황버섯 등 귀한 부원료를 조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무더운 여름 지치고 무기력한 몸에 활력을 주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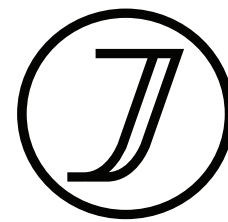
MART 보스턴 정관장 브랜드 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별링턴점 고객센터 건너편 위치

929.600.4880 전화주문 서비스
\$150 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4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2024, 2025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2025)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 2025년 **Boston Magazine** 선정 '최고의 에이전트'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Real Trends Verified 2024, 2025**)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여름방학 봉사... 로힝야 난민 아동 영어 튜터 모집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비영리 교육 단체 뉴호프 에듀케이션(NewHope Education)이 로힝야 난민 아동 4주 온라인 영어 교육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매일 하루 1시간씩 온라인 화상 수업 형태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동안 봉사 활동을 찾고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일반 성인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영어 교육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16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수업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8시부터 9시, 그리고 오후 9시부터 10시 두 개 타임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자원봉사자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해 하루 1시간씩 참여하게 된다. 수업은 모두 온라인 화상으로 이뤄진다.

참여자에는 기초 영어부터 회화, 읽기, 쓰기 등 다양한 수준의 수업을 맡게 되며,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학습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의무적으로 사전 훈련(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 한다.

로힝야는 미얀마 서부 라카인 지역에 오랜 기간 거주해 온 무슬림 소수 민족으로, 미얀마 정부로부터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해 무국적 상태로 살아온 사람들이 많다. 2017년 이후 발생한 군사 충돌과 폭력 사태로 대규모 탈출이 이어졌고, 현재는 대부분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Cox's Bazar)의 난민 캠프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열악한 주거 환경과 제한된 이동 권한 속에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은 교육 기회 자체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장기적인 학습 공백과 미래 기회의 상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난민 캠프는 제한된 인터넷 인프라, 학습 기기 접근성 부족, 불안정한 전력 공급 등의 문제로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뉴호프 에듀케이션은 한국선 교사들이 현지에 설립한 학교 및 다양한 교육 기관들과 협력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환경이 우수한 미국 보스톤 지역의 자원봉사자들과,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교육 환경에 놓인 난민 학생들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교육 격차를 줄이고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뉴호프 에듀케이션 관계자는 "가장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 중 하나인 보스톤의 학생들과, 교육 기회가 거의 없는 난민 학생들을 연결하는 것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희망을 나누는 일"이라며 "작은 참여 하나가 한 학생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뉴호프 에듀케이션은 보스톤 뉴호프 아카데미(501(c)(3) 비영리 단체) 산하의 아웃리치 무료 교육 프로그램이다. 관심 있는 사람은 웹사이트 www.newhopeeducation.org 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MBTA 그린라인 B 노선 22일부터 9일간 운행 중단... 주말엔 C·D 노선도 일부 중단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MBTA가 22일(수요일)부터 그린라인 B 노선의 켄모어(Kenmore)역과 보스톤 칼리지(Boston College)역 사이 구간 운영을 9일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4월 22일(수)부터 4월 30일(목)까지는 무료 셔틀버스가 대체 운행된다. 다만 셔틀버스는 접근성 제약으로 인해 그릭스 스트리트(Griggs Street), 올스턴 스트리트(Allston Street), 팩커즈 코너(Packard's Corner) 세 정류장에는 정차하지 않는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평소보다 이동 시간이 길어질 것을 감안해야 한다. MBTA는 보스톤 칼리지에서 파크 스트리트(Park Street)까지 가는데 최소 10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4월 25~26일 주말에는 운행 중단이 B 라인뿐 아니라 C 라인과 D 라인까지 확대된다. B 라인은 보스톤 칼리지~카플리(Copley) 전 구간이, C 지선은 카플리~세인트 메리 스트리트(Saint Mary's Street) 구간이, D 지선은 카플리~브루클라인 힐스(Brookline Hills)

구간이 각각 운영을 중단한다. 이 기간에는 무료 셔틀버스가 각 지선에서 백 베이(Back Bay)역까지 운행되며, 카플리와 거버먼트 센터(Government Center) 사이 그린라인 본선 열차 운행 간격도 줄어든다.

MBTA는 도심을 관통해 이동해야 하는 승객들에게 대안으로 백 베이역에서 오렌지라인(Orange Line)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백 베이에서 카플리까지는 약 0.25마일(400m) 거리로 도보 5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4월 22~24일과 27~30일 기간에는 켄모어와 팩커즈 코너 사이에서 57번 버스가 무료로 운행돼 추가 이동 수단을 제공한다. 단, 그린라인이 켄모어역에서 완전히 운행 중단되는 4월 25~26일 주말에는 57번 버스가 대체 교통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당국은 안내했다.

MBTA 관계자는 이번 운행 중단을 통해 그린라인 열차 보호 시스템(GLTPS) 설치 작업과 선로 개선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SMART DENTAL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SMART DENTAL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Boston K-Peace Culture Festival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Boston Chapter

보스톤 K-평화 문화축제

일시: 2026년 5월 9일(토) • 오후 2시 - 4시
장소: 보스톤 트리니티 교회 앞 코플리 스퀘어(Copley Square)
우천시, 730 Main St. Waltham, MA

주요 프로그램

- 문화공연
Baker School 부채춤/K-Pop 댄스
Northeastern University K-Pop 댄스
Didim Chum Dance Company 태평무
아리랑과 닐리리아 난타 공연
- 한반도 평화 메시지 전시 및 시민 참여 활동
- 청소년 1분 평화 스피치 (모든 학년 참여 가능)



후원 :  주보스톤총영사관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Boston

주최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톤 협의회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Boston Chapter

헌법개정안 재외국민투표 신고 27일 마감

해외서 투표하려면 별도 신고·신청 필수
주민등록 있으면 국외부재자, 없으면 재외투표인 등록 대상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이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에 참여하려면 4월 27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마쳐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개정안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을 4월 8일부터 27일까지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이번 절차는 해외에서 투표하려는 유권자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은 국외부재자로 신고해야 하고, 주민등록이 없거나 말소된 국민은 재외투표인으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중앙선거위는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특히 국외부재자 신고는 과거에 한 적이 있더라도 이번 국민투표를 위해 다시 해야 한다. 주 보스톤총영사관은 공지를 통해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대상은 국민투표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2025년 6월 3일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신고·신청 방법은 인터넷, 공관 방문, 순회접수, 우편, 전자우편 등이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중앙선거위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사이트 ova.nec.go.kr를 이용하는 것이다.

중앙선거위는 4월 7일 헌법개정안 공고에 따라 재외국민투표 준비에 착수했으며, 전 세계 175개 공관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재외국민 국민투표가 실시하려면 개헌안이 5월 국회에서 의결돼야 한다.

이번 접수는 뉴잉글랜드를 포함해 해외에 있는 한인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인 절차다. 이미 재외국민등록을 했더라도 자동으로 투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어서, 기간 안에 별도로 신고 또는 신청을 마쳐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번 헌법 개정안 무엇을 담았나. 이번 헌법 개정안은 권력구조 전면 개편보다는 여야가 비교적 공감대를 이룬 사안을 먼저 반영하는 ‘단계적 개헌’ 성격이 짙다. 핵심은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새로 담고, 대통령의 계엄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대폭 강화하며,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는 데 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헌법 전문이다. 개정안은 4·19 혁명 정신에 더해,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민주주의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다.

가장 큰 제도 변화는 계엄 조항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계엄 선포 후 48시간 안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국회가 이를 부결하면 계엄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권한을 헌법 차원에서 다시 묶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지역균형발전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국가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도록 헌법 제123조를 손질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를 헌법 가치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형식상 변화도 있다. 헌법 제명인 ‘大韓民國憲法’을 한글 표기인 ‘대한민국헌법’으로 바꾸는

내용도 이번 안에 담겼다. 상징적 조정이지만, 헌법 언어를 보다 현재의 공용 표기에 맞추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통과하려면 무엇이 남았나. 이번 헌법 개정안이 실제로 확정되려면 아직 세 단계가 남아 있다. 첫 번째는 공고 절차 완료, 두 번째는 국회 의결, 세 번째는 국민투표 통과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이번 개정안은 4월 7일 공고돼 27일까지 관련 절차가 이어진다. 국가 기록원은 헌법 개정 절차가 발의, 공고, 국회 의결, 국민투표, 공포 순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장 큰 관문은 국회다.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안에 의결해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정원은 300명이므로, 최소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반 법안보다 훨씬 높은 문턱이다. 국가기록원은

또 헌법개정안은 공고를 통해 국민에게 알린 내용 그대로 표결해야 하며, 수정 의결은 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국회를 넘더라도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130조는 국회가 의결한 뒤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조건은 두 가지다. 전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해야 하고, 실제 투표한 사람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즉 단순히 찬성이 반대보다 많기만 해서 안 되고, 투표율도 과반을 넘어야 한다.

국민투표까지 통과하면 그때 헌법 개정이 확정된다. 이후 대통령이 즉시 공포하면 개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반대로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하거나, 국민투표에서 투표율 또는 찬성률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이번 개헌안은 최종 통과되지 못한다.

editor@bostonkorea.com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중은치과, 좋은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ee@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p>이사 이제봉 DIRECTOR 781.654.5281 jblee@bostonpremierrealty.com</p>	 <p>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p>	 <p>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athysong@bostonpremierrealty.com</p>	 <p>매니저 크리스틴 손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p>	 <p>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hn@bostonpremierrealty.com</p>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p>EJ Kim 617.388.7652 ejkim@bostonpremierrealty.com</p>	 <p>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p>	 <p>니키 박 617.447.0591 nikkiepark@gmail.com</p>	 <p>피터 주 617.780.7839 thepeterju@gmail.com</p>	 <p>지나 최 978.866.3248 thepeterju@gmail.com</p>	 <p>이현주 401.935.3397 hyunju0921@gmail.com</p>
 <p>사라 유 617.83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p>	 <p>그레이스 정 617.455.7710 grace.jeong@bostonpremierrealty.com</p>	 <p>황수진 617.538.6973 sujiwang1@gmail.com</p>	 <p>마사 송 213.503.0397 marcia@bostonpremierrealty.com</p>	 <p>미키 최 413.507.1402 mickichoi@gmail.com</p>	 <p>손창배 617.913.3369 son@bostonpremierrealty.com</p>
 <p>최진민 617.877.0387 jchoi52@bostonpremierrealty.com</p>	 <p>이영순 781.800.3412 bostony@bostonpremierrealty.com</p>	 <p>한혜숙 781.999.1214 hhan@bostonpremierrealty.com</p>	 <p>차민영 617.515.1162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p>	 <p>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p>	 <p>메건 리 404.641.5102 megan@bostonpremierrealty.com</p>
 <p>Tammy Woolfolk 917.224.56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p>	 <p>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000@gmail.com</p>	 <p>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gmail.com</p>	 <p>Vivian Yu 617.935.2713 viviany@bostonpremierrealty.com</p>	 <p>Xian Dole 413.522.8979 xiangy2022@gmail.com</p>	 <p>Lu Jang 240.449.0117 jangubox@gmail.com</p>
 <p>John Tran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p>	 <p>Rebecca Phu 617.833.1088 becca@bostonpremierrealty.com</p>	 <p>Michael Somma 978.873.0076 mike@bostonpremierrealty.com</p>	 <p>Linda Ta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p>	 <p>Jun Wang 646.270.29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p>	 <p>Lily Wang 617.938.7212 lege@bostonpremierrealty.com</p>
 <p>Crystal Wei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p>	 <p>빈센트 박 201.446.8595 vincent@bostonpremierrealty.com</p>	 <p>제이크 김 871.956.0409 djakekim@bostonpremierrealty.com</p>	 <p>이상현 857.260.0434 sanglee@bostonpremierrealty.com</p>	 <p>Mimi Belanger 413.237.1586 mimiy111@hotmail.com</p>	

AI 확산에 보스턴·매사추세츠 일자리 대규모 충격 전망

터프츠대, 보스턴권 20만7천개, 주 전역 26만개 일자리 위험 매사추세츠, 수혜지이자 동시에 미국 최고 위험 지역으로 분석 작가·프로그래머·웹디자이너 취약... 보스턴 지식산업 밀집 구조가 변수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인공지능 확산으로 향후 5년간 보스턴대도시권(Greater Boston)에서 20만7천여개, 매사추세츠 전역에서는 2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터프츠대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스턴글로벌브가 21일 보도한 터프츠대 '아메리칸 AI 잡스 리스크 인덱스'에 따르면 이로 인한 매사추세츠의 임금 손실 규모는 2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 보고서는 매사추세츠를 미국 50개 주 가운데 AI발 일자리 상실 위험이 가장 큰 주로 평가했다. 워싱턴 D.C.까지 포함하면 D.C.가 더 높지만, 주(state)만 놓고 보면 매사추세츠가 가장 취약한 곳으로 나타났다. 보스턴 대도시권은 순일자리 감소 규모 기준 미국 대도시권 6위였고, 보스턴-캠브리지-뉴턴 권역에서 약 20만7019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놓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를 이끈 바스카르 차크라보르티 터프츠대 플래처스쿨 글로벌비즈니스 학장은 보스턴이 코딩, 글쓰기, 콘텐츠 제작, 데이터 분석, 시장조사, 지식 생산 관련 직위가 밀집한 도시라는 점을 핵심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연구진은 AI가 과거 자동화처럼 육체노동부터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고학력·고임금의 지식노동부터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직종별로는 작가와 저자가 가장 취약한 직군으로 분류됐다. 이 직군의 예상 일자리 감소 비율은 57%였고,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웹·디지털 인터페이스디자이너는 각각 55%로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또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베이스 설계자, 소프트웨어 관련 직군, 분석가, 기자 등도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군에 포함시켰다.

〈전체 기사 읽기〉

산업별로는 정보산업의 예상 일자리 감소율이 18.3%로 가장 높았고, 금융·보험업이 16.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15.6%로 뒤를 이었다. 대학, 병원, 연구기관, 바이오, 금융, 소프트웨어, 미디어가 함께 밀집한 보스턴 경제 구조를 감안하면 AI 충격이 지역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육체노동과 현장 중심 직무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으로 분류됐다. 보고서에서 노출도가 낮은 직업군에는 석공, 철도 작업 인력, 화장장 운영자, 패스트푸드 종사자, 용접공, 육류 가공업 종사자, 수술 보조인력 등이 포함됐다. 연구진은 AI가 아예 수행하기 어렵거나, 수행이 가능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은 대체 속도가 느릴 것으로 봤다.

다만 이번 전망은 AI 도입 속도를 중간 수준으로 가정한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 전체적으로 향후 2년에서 5년 사이 9백30만 개 일자리가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추산했으며, 도입 속도가 더 빨라질 경우 2031년까지 최대 1천9백50만 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매사추세츠의 경우 빠른 도입 시나리오에서는 53만5천개 일자리 상실 가능성도 제시됐다.

연구진은 다만 이번 지수가 AI 확산으로 새롭게 생길 일자리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크라보르티 학장은 AI 스타트업이 늘어나더라도 적은 인원으로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구조여서, 새 일자리가 기존 일자리 감소를 빠르게 메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스턴이 AI 산업의 수혜지이면서 동시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도시라는 경고가 함께 나온 셈이다.

hsb@bostonkorea.com

2026 대졸 초년생 전문직들 선호 도시 탑 10

순위	도시 (City, State)	초년생 평균 연봉	주요 특징
1위	워싱턴 D.C.	\$79,857	높은 급여와 풍부한 커리어 기회로 1위 선정
2위	오마하, 네브래스카	\$59,123	낮은 주거비와 안정적인 고용 시장의 조화
3위	보스턴, 매사추세츠	\$80,026	조사 대상 중 최고 연봉, 교육 및 의료 인프라 최상위
4위	댈러스, 텍사스	\$67,451	기업 이점이 활발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우수
5위	시카고, 일리노이	\$72,786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소득 대비 주거비 합리적
6위	휴스턴, 텍사스	\$65,369	에너지 및 의료 산업 중심의 강력한 고용 시장
7위	세인트루이스, 미조리	\$61,834	집값 대비 소득 수준이 매우 높아 자산 형성 유리
8위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74,053	높은 주거비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기후와 삶의 질 제공
9위	마이애미, 플로리다	\$62,748	활기찬 문화적 다양성과 신규 테크 허브로 부상
10위	오스틴, 텍사스	\$72,025	실리콘 힐스로 불리는 기술 직군 최고의 선택지

집값 비싸도 보스턴 여전히 인기... 대졸 전문직들 선호 도시 3위

▶▶1면에 이어서

데 보스턴의 주거비 부담 순위가 48위였다. 레드핀의 아사드 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보스턴의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크지만, 높은 초봉과 장기적인 소득 상승 가능성이 이를 일정 부분 상쇄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처음부터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도시에서 경력을 시작하면 이후 임금 상승 여력도 커지기 때문에, 단순히 집값만 보고 도시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칸은 "결국 현실은 이 도시에 투자할 의향이 생기려면 어느 정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도 이것이 주거비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없애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스턴 지역에게는 분명 도전 과제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저울질을 하고 있다. 훌륭한 삶의 질, 훌륭한 일자리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혜택을 기존의 주거 문제와 견주어 보며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글래스도어 급여 리뷰 56만3000건, 직장 리뷰 66만2000건, 구인 공고 2200만 건, 레드핀의 주택 거래 데이터 250만 건 이상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평가 항목은 스타터홈 접근성, 소득 대비 주거비

, 일자리 수, 직장 만족도, 경력 성장 가능성, 위크라이프 밸런스, 보행 점수와 대중교통 점수 등 13개 지표였다. 결국 보스턴은 "살기는 비싸지만, 커리어를 시작하기엔 여전히 강한 도시"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한편, 대도시 부문 상위 10위에는 오스틴, 휴스턴, 달라스 등 텍사스 주 3개 도시가 포함돼 최근들어 가장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임을 확인시켰다.

그러나 잘 알려진 뉴욕,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은 모두 높은 주거비와 치솟는 생활비로 인해 상위권에 들지 못했다. 로스앤젤레스는 주택접근성 측면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AI로 뜨거워진 샌프란시스코 상황은 충격적이다. 2026년 3월 기준 샌프란시스코 광역권 주택 중위 가격은 17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4.4% 상승한 수치로, 미국 50대 대도시권 중 가장 큰 상승폭이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번 이웃 도시 산호세를 제치고 '미국 최고 주택 시장' 타이틀을 다시 가져갔다. 170만 달러짜리 집의 계약금 20%인 34만 달러를 모으는 데는 초년 전문직 기준 수십 년이 걸린다.



✝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주일 미사 Lord's Day Mass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Korean)

평일 미사 Weekday Mass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매달 첫째)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Contact Us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617)558-2711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www.BostonKoreanCatholic.org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불우한 한인 돕기 - 사랑 나누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지원

뉴턴에 위치한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주임 신부 배웅진 크리스토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보스턴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지원하는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은 성당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부님과 사회복지분과에서 상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따뜻한 손길을 모아 물질적, 정서적, 영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문의 및 후원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전화: 617-558-2711
이메일: help@bostonkoreancatholic.org




보스턴 새소망 글로벌감리교회
BOSTON NEW HOPE GLOBAL METHODIST CHURCH
45 WOBURN ST. READING, MA 01867

주일 예배 : 오후 2:30
장소 : 45 Woburn St, Reading, MA 01867
새벽 기도회 : 화-토 오전 6시 (ZOOM)
수요성경공부 : 오후 8시 (ZOOM)
지역선교 : 행복 시니어 학과 매월 넷째 주
(문의 : 김지영 권사, 603.674.3415)

진남조 목사 : 201.667.9777
namjojin@gmail.com

www.bnhkgm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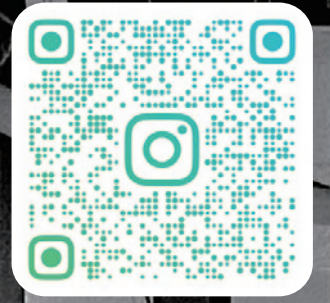

웹사이트


유튜브


수요성경공부


새벽기도회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www.premierworkspro.com

비만치료제 개발사 카일러라, 6억2500만불 IPO... 모더나 넘어선 바이오 최대어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매사추세츠주 월담(Waltham, MA)에 본사를 둔 비만치료제 개발사 카일러라 테라퓨틱스(Kailera Therapeutics Inc.)가 지난 17일 나스닥 상장을 통해 6억2500만 달러를 조달하며 매사추세츠 바이오 테크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 중 하나를 기록했다.

보스턴비즈니스저널에 따르면 카일러라는 공모가를 주당 16달러로 책정하고 약 390만 주를 매각해 이번 주 초 목표했던 5억 달러를 훨씬 웃도는 금액을 거둬들였다. 회사 주식은 18일(금요일)부터 나스닥에서 티커 'KLRA'로 거래를 시작했다.

상장 첫날 카일러라 주가는 공모가 대비 63% 급등한 26달러에 마감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시가총액은 약 31억 달러에 이르게 됐다. 23일 현재는 \$25.07에 거래되고 있다.

이번 6억2500만 달러의 총 조달액은 인수기관의 추가 주식 매입 옵션 행사분을 아직 포함하지 않은 수치로, 바이오파마 다이버(Biopharma Dive)가 2018년부터 집계한 바이오 테크 IPO 순위에서 역대 3위에 해당하는다.

카일러라는 2018년 6억400만 달러를 조달한 모더나(Nasdaq: MRNA)를 비롯한 매사추세츠의 여러 대형 바이오 테크 기업들을 제치고 이 순위의 최상위에 올랐다. 카일러라를 앞서는 기업은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로열티 매입사인 로열티 파마(Nasdaq: RPRX)와 세계 최대 콘택트렌즈 공급사 중 하나인 안과 전문 기업 보쉬엔롬(Nasdaq:

BLCO) 뿐이다.

카일러라는 IPO 이전에 이미 비만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시리즈 A와 B 라운드를 통해 약 10억 달러에 가까운 민간 투자를 유치한 상태였다. 투자자 연합에는 베인 캐피탈 라이프 사이언스, 베인 캐피탈 프라이빗 에쿼티, RTW 인베스트먼트, 아틀라스 벤처, 그리고 캐나다 연기금 투자위원회(CPP Investments) 등이 포함돼 있다.

2024년 10월 출범한 카일러라는 론레노(Ron Renaud) 최고경영자가 이끌고 있다. 레노는 과거 자신이 이끈 회사들을 잇따라 수십억 달러 규모에 매각시킨 인물로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가 이전에 경영했던 세레벨 테라퓨틱스(Cerevel Therapeutics)는 지난 2024년 애브비(AbbVie)에 87억 달러에 인수됐고, 이데닉스 파마슈티컬스(Idenix Pharmaceuticals)는 2014년 머크(Merck & Co.)에 38억5000만 달러에 매각됐다. 이외에도 트랜슬레이트 바이오(Translate Bio)를 이끈 경력이었다.

카일러라는 비만치료제 시장의 거물급 경쟁자들과 정면으로 맞붙을 계획이다. 현재 일라이 릴리(Eli Lilly)와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가 승인된 비만치료제 주사제와 경구제를 앞세워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비만치료제 시장 규모는 2030년경 2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카일러라의 주력 후보물질은 리부파타이드(ribupatide, 코드명 KAI-9531)로, GLP-1과 GIP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하는 이중 작용제이다. 현



재 주 1회 투여 주사제로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며, 경구용 제형도 함께 개발되고 있다. 지난 2월 발표된 임상 2상 결과에서 25mg 또는 50mg 용량의 리부파타이드를 투여 받은 환자들은 26주 시점에 12.1%의 체중 감소를 보였으며, 이는 위약군의 2.3%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였다. 카일러라는 이 약물에 대한 권리를 중국 장쑤 헝루이 제약(Jiangsu Hengrui Pharmaceuticals)으로부터 확보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카일러라는 월담 180 서드 애비뉴(180 Third Ave.)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약 3만9500 평방피트의 사무공간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2026년 초 기준 정규직 직원은 145명이다.

지난해 경기 침체 속에 조용했던 매사추세츠 기업들은 2026년 들어 공모 시장에서 잇따라 성공을 거두고 있다. 서머빌에 본사를 둔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Generate Biomedicines Inc.)은 IPO를 통해 4억 달러를, 보스톤 소재 악티스 온콜로지(Aktis Oncology Inc.)는 약 3억 1800만 달러를 각각 조달했다. 이 밖에도 시포트 테라퓨틱스(Seaport Therapeutics), 아발린 파마(Avalyn Pharma), 헤마브 테라퓨틱스(Hemab Therapeutics) 등 여러 매사추세츠 기업들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상장할 계획을 밝힌 상태다.



130회 보스턴마라톤, 존 코리어 코스 신기록으로 2연패... 새론 로케디도 2년 연속 우승

▶▶ 1면에 이어서
됐다” 고 말했다.

여자부는 초반부터 큰 선두 그룹이 형성됐다. 미국의 캐리 엘우드와 하프 지점까지 선두권을 이끌었고, 20마일까지도 9명이 우승 경쟁을 이어갔다. 그러나 로케디는 하트브레이크 힐 정상 부근부터 존재감을 드러냈고, 35킬로미터 이후에는 케냐 선수들만 남은 선두권에서 승부를 굳혔다. 출발선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시계를 두고 온 사실을 알고 다른 선수의 시계를 빌려 차고 땀 일화도 화제가 됐다.

로이스 챔농이 2시간 19분 35초로 2위, 메리 은구기-쿠퍼가 2시간 20분 7초로 3위를 기록했다. 세 선수 모두 케냐 국적이며, 이번 결과로 챔농과 은구기-쿠퍼는 보스턴마라톤 역대 기록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선수들도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 남자부의 주하이르 탈비는 2시간 3분 45초, 여자부의 제시카 맥클레인은 2시간 20분 49초로 각각 보스턴 코스에서 미국 선수 최고 기록을 세웠다. 두 선수 모두 5위로 경기를 마쳤다.

휠체어 여자부에서는 레인보우-쿠퍼가 초반 5킬로미터 지점에서부터 스위스의 카트린 드브루너에 24초 차 리드를 잡으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드브루너는 1시간 32분 59초로 2위, 미국의 타티아나 맥패든은 1시간 36분 43초로 3위를 기록했다. 남자 휠체어 부에서는 후그가 2위 대니얼 로만척을 6분 38초 차로 제쳤고, 네덜란드의 예제 플라트가 3위에 올랐다.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870.0508
978.870.0043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헌법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2026.04.08 ~ 04.27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대상

국민투표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대상

국민투표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2025년 6월 3일 실시한 제 21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은 사람

신고·등록신청 방법



· 인터넷

ova.nec.go.kr

▶ 신고·등록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공관방문 / 순회접수 시 서면 신청

· 우편 / 전자우편(e-mail) 해당 공관에 문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투표 홈페이지(ok.nec.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에서 확인하세요

매사추세츠, <매스 윈스 법안> 발의...시·양자·로보틱스에 3억500만 달러 투자

기업 창업 수수료 500달러에서 100달러로 인하 추진...국제 투자 유치도 본격화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주지사 16일 새로운 경제개발 법안인 '매스 윈스 법안(Mass Wins Act)' 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양자기술, 기후테크, 국방, 로보틱스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 매사추세츠를 글로벌 기업 유치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전체 규모는 3억500만 달러의 자본지출승인으로 구성됐다.

힐리 행정부는 이번 법안이 지난해 추진한 경제개발 정책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공격적인 경쟁력 강화책이라고 설명했다. 힐리 주지사는 "매사추세츠가 인재와 혁신, 선도의 의지를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며 "응용인공지능과 양자기술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 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해

<전체 기사 읽기> 외 자본과 해외 기업 유치다. 주정부는 매사추세츠 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최소 5천만 달러의 시드 자금을 투입하고, 해외 기업의 이전과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부지 개발 및 기반 시설 예산으로 2천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는 연방 차원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 차원에서 직접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기업 비용을 낮추는 조치도 포함됐다.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를 현재 500달러에서 100달러로 낮추고, 소기업 에너지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2만개 업체 더 늘릴 계획이다. 또한 매사추세츠로 이전하는 대형 고용주에게는 다른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할인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건축 규정 향상 절차도 보다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손질하도록 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개발 장벽 완

화도 이번 법안의 한 축이다. 법안은 부지 계획 심사에 대한 주 전체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활용도가 떨어진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선택지를 넓혔다. 또 시장이 공식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해 주택 개발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인재 확보 대책도 담겼다. 주정부는 비경쟁 조항 관련 법을 일부 손질하고, 청년층과 사회 초년생의 현장 경험을 늘리기 위해 연간 1천만 달러 규모의 인턴십 세액공제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매사추세츠에서 공부한 젊은 인재가 졸업 후 다른 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기업과 연결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산업별 투자 항목을 보면 국방 분야 혁신에 1억 달러, 인공지능 확산과 양자기술 등 신기술 육성에 7천500만 달러, 로보틱스 산업 클러스터 지원에 2천500만 달러가 각각 포함됐다. 여기에 시설 확장 또는 신축 기업 지원에 2천500만 달러,



다운타운 및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에 2천500만 달러, 문화·창조경제 분야 투자에도 2천500만 달러가 배정됐다. 국제 자격을 가진 간호사와 엔지니어의 취업 장벽을 낮추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번 법안은 결국 매사추세츠가 첨단산업 중심지라는 기존 강점을 지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해외 기

업과 자본까지 적극 끌어들이 "미국 내 투자 거점" 이라는 새 위치를 선점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기업 창업 비용 인하, 에너지 비용 완화, 인재 정착 지원, 주택 공급 확대를 한 묶음으로 다룬 점도 특징이다. 법안 전문과 요약본은 매사추세츠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 2026년도 장학생 모집

내일을 이끌 미래의 주역들을 찾습니다

선발대상 한국인 유학생, 한국계 미국인, 1.5세, 2세 및 입양자로서 학업성과 리더십이 출중하고 한국 전통 유산을 존중하는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고교 11·12학년 학생
*뉴잉글랜드 거주자

장학금액 \$2000-3000
지원방법 온라인 제출 (신청 양식: www.snuane.org)
마감일자 5월20일

For detailed information and application forms, please visit our website: www.snuane.org

기쁨을 주십시오, 위험 말고.

복권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웹사이트 mass.gov/YouthGambling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Massachusett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DPH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링, 'DNA를 의약품으로' 새 바이오텍 세리프 출범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케임브리지의 한 신생 바이오 기업이 수십 년 동안 유전 정보 저장 소로만 알려져 왔던 DNA를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길을 찾았다고 밝혔다.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링(Flagship Pioneering)은 21일 화요일 바이오텍 세리프 바이오메디슨(Serif Biomedicines)의 출범을 공식 발표하고, '변형 DNA(Modified DNA)'를 새로운 종류의 의약품으로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리프는 이번 주에 대중에 공개됐지만 사실 2021년 플래그십 랩스(Flagship Labs) 내부에서 창립된 이래 5년간 비공개로 플랫폼 개발을 진행해 왔다. 케임브리지 소재 플래그십은 회사 플랫폼 개발과 첫 신약 개발 프로그램 진전을 위해 5천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약정했다.

세리프의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이자 플래그십의 오리지네이션 파트너인 제이콥 루벤스(Jacob Rubens)는 "지난 25년간 우리 플래그십은 바이오텍 혁신을 가장 앞서 지켜봐왔다. 그 동안 새로운 의약품 양식들이 등장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RNA 간섭(RNAi) 기반 의약품을 개발하는 앨라일람 파마슈

티컬스(Anylam Pharmaceuticals)와 플래그십이 직접 분사시킨 모더나(Moderna)의 mRNA 의약품 등 RNA를 치료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가 포함된다. 루벤스 이에 앞서 제네테크(Genentech)와 암젠(Amgen) 같은 기업들을 통해 단백질이 처음으로 바이오기술로 자리잡는 것을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루벤스는 이제 DNA의 차례라고 말한다. "우리는 2021년경 만약 DNA가 그와 같은 변환 과정을 거쳐 처음으로 '엔지니어링이 가능한' 바이오테크놀로지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졌다"고 그는 설명했다.

회사 이름인 '세리프'는 DNA를 변형하는 작업을 폰트의 세리프(글자 끝부분의 장식 획)에 빚댄 것이다. 알파벳에 세리프를 추가하면 글자의 모양은 미묘하게 달라지지만 의미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세리프는 DNA의 의미를 바꾸지 않으면서 그 구조와 화학적 형태만을 정교하게 다듬었다.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링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이자 세리프의 공동창업자인 누바르 아페얀(Noubar Afeyan) 박사는 "생명체의 기초적

인 한 층위가 엔지니어링 가능해질 때, 의학의 가능성을 다시 정의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카테고리들이 탄생한다"고 말했다.

세리프가 성공할 경우, 변형 DNA는 mRNA와 유전자 치료의 장점만을 결합하면서 그 한계는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루벤스에 따르면 이는 단백질 생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환자에게 반복 투여가 가능하며, 특정 조직에서만 유전자가 발현되도록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의약품의 미한다.

물론 극복해야 할 장벽들이 있다. DNA가 유전자 치료를 제외하고는 치료 수단으로 성공적으로 활용된 적이 없는 이유는 체내에서 면역 반응을 유발하고 세포핵에 효율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루벤스는 아직 승리를 선언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긍정적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환자들을 치료하고, DNA가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더 낮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전까지는 이 장벽들을 극복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기에 성공을 선언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증거는



매우 긍정적인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우리가 이뤄낸 진전은 우리 이야기를 세상과 공유하고, 무엇보다 다른 과학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도록 동기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세리프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학회에서 변형 DNA 플랫폼을 뒷받침하는 전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다. 회사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정맥 투여(IV) 방식으로 투여한 경우 비인간 영장류 시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됐고, 전임상 모델에서 지속적인 유전자 발현과 함께 치료 효과가 관찰됐다고 한다. 세리프의 변형 DNA 플랫폼은 미국 등록 특허를 포함해 20개 이상의 특허 패밀리로 보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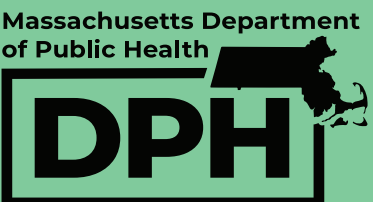
루벤스는 사람들이 과거에 도전했었으나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푸는 일은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한다.

"다음에 도전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곳에서 마찬가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의 부담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뤄낸 것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만큼 잘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임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들과 마주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좋은 일이다. 그것이 과학이 발전하고 진화하는 방식의 일부"라고 덧붙였다.

editor@bostonkorea.com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보스턴 월드컵 팬페스트, 6월 12일 시청 광장서 개막... 16일간 무료 운영

(보스턴=보스턴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턴 월드컵 유치위원회(Boston 26)는 21일 시청 광장(City Hall Plaz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여름 월드컵 기간에 맞춰 진행될 '피파 팬 페스티벌(FIFA Fan Festival)'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팬페스트는 팍스보로 질레트 구장(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첫 월드컵 경기 하루 전날 시작된다. 이어 다섯 번째 조별리그 경기가 끝난 다음 날인 6월 27일까지 16일간 시청 광장에서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축제 공간을 제공한다.

행사는 무료로 일반에 공개되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하루 입장 인원이 약 5,000명으로 제한된다. 참가자는 사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주최 측 웹사이트의 등록 기능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팬페스트에서는 매일 2~3경기가 대형 영상 스크린을 통해 실황 중계된다. 경기 상영 일정은 실제 경기 시간에 맞춰 편성된다. 경기 시청 외에도 피파 레전드 선수들의 방문 행사, 2026 월드컵 공식 마스코트 등장, 지역 예술가·음악가·공연자들이 참여하는 '문화 쇼케이스'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미셸 우 보스턴 시장은 팬페스트가 "월드컵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중심 허브가 될 것이며, 우리 도시와 전 세계의 팬들을 한자리에 모아 모든 문화를 아우르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드리스콜(Kim Driscoll) 주 부지사도 "팬페스트는 무료로 개방되며 에너지가 넘칠 것

〈전체 기사 읽기〉

이다. 대형 스크린, 지역 공연자, 소상공인, 음식, 기념품을 떠올리면 된다. 멀리서 오든 가까이서 오든 팬들이라면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팬페스트의 취지는 대형 영상 스크린을 통해 경기를 시청할 수 있는 공공 집결지를 마련하고, 7개 경기의 티켓과 교통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팬들에게도 월드컵의 열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경기 사이의 시간에는 다양한 음식과 음료를 즐길 수 있으며 엔터테인먼트가 제공된다.

이 지역 월드컵 경기는 팍스보로 질레트 구장에서 열리지만, 대회 기간 중 200만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스턴은 팬허브 역할을 맡게 된다.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행사를 보스턴이라는 도시를 세계에 알릴 기회로 보고 있다.

올여름 세일 보스턴(Sail Boston) 행사를 주관하는 이벤트 에이전시 컨벤쳐스(Conventures Inc.)의 창업자 겸 대표 더스티 로즈(Dusty Rhodes)는 "보스턴은 아주 강력한 홍보 존재감을 가져야 한다. 경기장이 45분 거리에 있기 때문"이라며 "팬페스트는 보스턴이 얼마나 훌륭한 국제 도시인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말했다.

보스턴 사커 26의 마이크 로인드(Mike Loynd) CEO는 "개막까지 53일이 남았다.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는 현재 진행 상황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모든 계약을 마쳤고, 일정



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디자인도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이날 시가 여름 동안 동네별 경기 시청 블록파티와 월드컵 관련 하루짜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두 가지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추가 발표했다. 시는 또한 월드컵 관련 동네 상업 시설 안내서를 제작해 방문객과 주민 모두 도시를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상세 내용은 추후 Boston.gov/summ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스턴 지역은 이번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5경기, 32강전 1경기, 8강전 1경기 등 총 7개 경기를 개최한다. 경기 일정은 다음과 같다.

- 6월 13일(토) 오후 9시: 아이티 vs 스코틀랜드 (C조)
- 6월 16일(화) 오후 6시: 이라크 vs 노르웨이 (I조)
- 6월 19일(금) 오후 6시: 스코틀랜드 vs 모로코 (C조)
- 6월 23일(화) 오후 4시: 잉글랜드 vs 가나 (L조)

6월 26일(금) 오후 3시: 노르웨이 vs 프랑스 (I조)

6월 29일(월) 오후 4시 30분: 32강전

7월 9일(목) 오후 4시: 8강전

한편 경기 운영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사우스스테이션과 질레트 구장을 오가는 커뮤니티 레일 왕복 요금 80달러, 버스 왕복 95달러, 제한된 주차 요금 175달러부터 시작되는 교통비가 도마에 올랐다.

필라델피아가 월드컵 경기 후 팬들에게 무료 기차를 제공하고 캔자스시티가 왕복 버스 티켓을 단돈 15달러에 제공하는 것과 비교되며 비판을 받고 있다. 관계자들은 폭스보로가 보스턴에서 20마일 떨어져 있다는 점이 비용 상승 요인이라고 해명했다.

패트리어츠 경기 당일이면 열린 테일게이트(tailgating, 경기장 주차장에서 음식을 나누며 즐기는 응원 문화) 금지 방침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로인드

CEO는 FIFA가 16개 개최 도시 전체에 제시한 이 원칙을 "보스턴 위원회가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채 수용한 것일 수 있다"며 "경기장 측도 팬들의 경험이 패트리어츠 경기 때와 같기를 원하고 있다. 이번 주 동안 테일게이트에 대해 좋은 대화를 나누고 좋은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트 보스턴(Meet Boston)의 마사세티던 대표 겸 CEO는 지금까지의 경기 티켓 판매가 "매우 활발하다"고 밝히며, 구매자 구성은 뉴잉글랜드 거주자, 미국 내 타 지역 거주자, 해외 방문객이 각각 약 3분의 1씩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6월 국제선 항공 예약은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월드컵 경기는 6월부터 약 5주에 걸쳐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전역에서 진행된다. 첫 공식 월드컵 경기는 6월 13일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아이티와 스코틀랜드 대표팀 사이에 열린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턴에서 한국 팀 경기 보려면... 월드컵 시청 가이드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한국 대표팀이 2026 월드컵 A조에 배정되면서 멕시코, 남아공, 체코와 조별리그를 치르게 됐다. 손흥민이 이끄는 한국은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대기록과 함께 이번 대회에 임한다. 보스턴 한인들이 한국 경기를 어떻게 시청할 수 있을지 정리해봤다.

한국 대표팀 조별리그 일정 (미 동부 시간 기준)

- 6월 11일(목) 밤 10시: 한국 vs 체코 -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
 - 6월 18일(목) 밤 9시: 멕시코 vs 한국 -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
 - 6월 24일(수) 밤 9시: 체코 vs 멕시코와 동시 진행 / 한국 vs 남아공 -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
- 세 경기 모두 멕시코에서 열리며, 미 동부 시간 저녁 9시대와 밤 10시대가 뉴잉글랜드 교민들이 시청하기에 무리 없는 시간대다.

〈전체 기사 읽기〉

보스턴 팬페스트(FanFest)에서 볼 수 있는

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팬페스트는 6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운영되며, 하루 2~3 경기를 선별 중계한다. 이에 따라 한국 경기의 팬페스트 중계 가능성은 경기별로 갈린다.

첫 경기인 6월 11일 한국 vs 체코전은 팬페스트 개막 하루 전이라 시청 광장에서 볼 수 없다. 반면 6월 18일 멕시코 vs 한국전은 개최국 멕시코의 경기라는 점에서 보스턴 팬페스트뿐 아니라 전국 16개 개최 도시의 팬페스트 주요 편성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6월 24일 한국 vs 남아공전도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로 팬페스트 기간 중에 열려 중계 가능성이 있다.

팬페스트 일일 중계 편성표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팬페스트 관람을 계획하

고 있다면 Boston 26 유치위원회 공식 웹사이트(bostonfwc26.com)와 FIFA 팬페스티벌 페이지를 통해 향후 공개될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팬페스트 입장은 무료지만 하루 5,000명으로 제한되며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월드컵 TV중계

미국 내 2026 월드컵 영어 중계 방송사는 Fox 스포츠 채널 계열(Fox, FS1, FS2)이다. 한국-체코전 같은 일부 경기는 이미 FS1 편성이 공지됐다.

일반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을 사용하는 가정은 추가 요금 없이 Fox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케이블을 해지한 '코드 커터' 가정은 Fox One, Hulu + Live TV, YouTube TV, Sling TV Blue, Fubo 등을 통해 Fox 생방송 시청이 가능하다.

이들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 체험 기간을 제공하므로 월드컵 기간에 맞춰 가입했다가

해지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스페인어 중계

미국 내 스페인어 중계권은 텔레문도(Telemundo)와 유니비전(Universo)이 보유하고 있다. 중남미 교민들과 스페인어권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멕시코 현지에서 열리는 한국전 중계에서는 보다 생생한 분위기를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텔레문도 앱과 NBC의 Peacock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다.

한국어 중계

한국 교민들이 한국어 중계를 원할 경우, 한국의 지상파 3사(KBS, MBC, SBS)가 중계권을 공동으로 확보해 중계할 예정이다. 다만 미국에서 한국어 중계를 합법적으로 시청하려면 KBS America, MBC America 등 한인 전용 유료 방송 서비스 가입이 필요하다.

hsb@bostonkorea.com

아마존 투자 소형원자로 기업 엑스에너지, 24일 나스닥 상장

공모 8억1400만불, 아크 인베스트 캐시우드 대규모 투자로 기대 상승

(보스턴=보스턴코리아) 장명술 기자 = 차세대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X-energy)가 오는 24일 금요일 나스닥에 상장한다.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장명술 기자 = 엑스에너지는 아마존 (Amazon)이 5억 달러를 투자한 기업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가장 주목받는 원전 벤처 중 하나다. 상장에 성공하면 뉴스케일과 위와 오클로에 이어 세번째 증시에 오른 SMR 기업이 된다.

메릴랜드주 록빌(Rockville)에 본사를 둔 엑스에너지는 주당 16~19달러 범위에서 4천290만 주를 발행해 최대 8억 1천400만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다.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 회사의 기업 가치는 약 75억 1천만 달러에 이르게 된다. 주식은 'XE'라는 티커로 나스닥에서 거래되며, 상장 주관은 JP모건, 모건스탠리, 제프리스, 물리슨 컴퍼니가 맡았다.

엑스에너지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존과의 전략적 관계다. 아마존은 지난 2024년 엑스에너지의 시리즈 C-1 펀딩 라운드에서 5억 달러를 직접 투자했다. 아마존은 2039년까지 5기가와트 (GW) 이상의 엑스에너지 SMR을 자사 데이터 센터 전력용으로 배치할 수 있는 옵션을 확보한 상태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워싱턴주의 에너지 노스웨스트와 함께 추진하는 캐스케이드 첨단 에너지 시설(Cascade Advanced Energy Facility)이다.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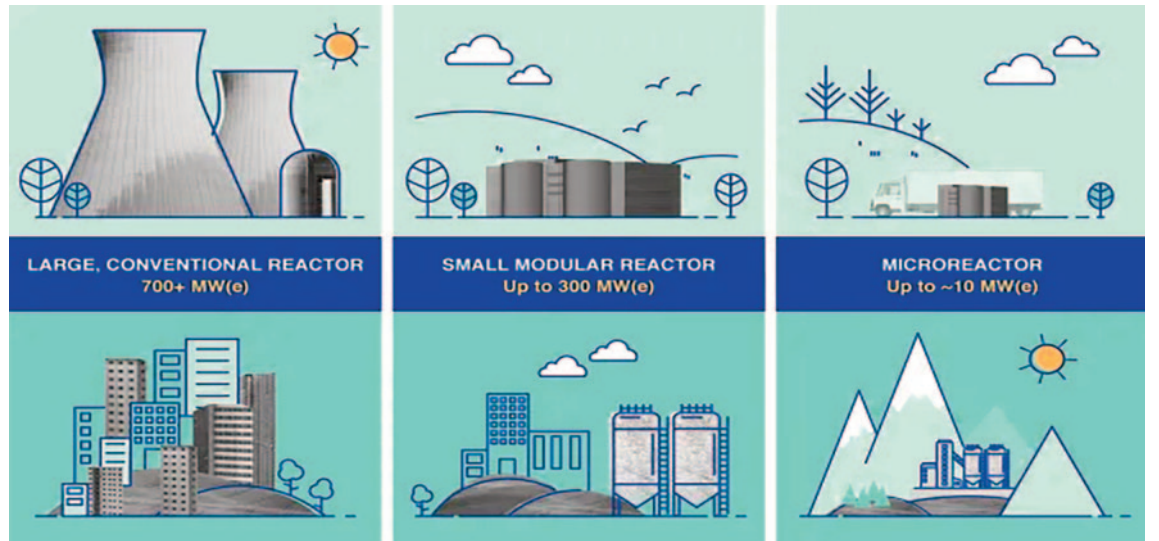
〈전체 기사 읽기〉

트먼트 매니지먼트(ARK Investment Management)도 이번 상장에 힘을 싣고 있다. 엑스에너지는 지난 15일 증권신고서를 통해 "아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와 그 계열사가 공모 가격으로 최대 1억 500만 달러 상당의 주식 매수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명시했다. 아크의 대규모 참여 의사는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우(Dow), 제인 스트리트(Jane Street), 에리스 매니지먼트(Ares Management), 클라이밋 플레지 펀드(Climate Pledge Fund), 세그라 캐피탈(Segra Capital Management) 등 굵직한 투자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다우는 텍사스주 시드 리프트(Seadrift) 부지에 엑스에너지의 Xe-100 원자로 4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심사를 받고 있다. 영국의 센트리카(Centrica)로부터도 6기가와트 규모의 공급 의향 약속을 받은 상태다.

엑스에너지의 대표 기술은 Xe-100 원자로다. 헬륨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고온 가스 냉각로(High-Temperature Gas-cooled Reactor)로, 한 기당 80메가와트의 전력 또는 200 메가와트의 열 출력을 낼 수 있다. 기존 경수로와 달리 산업 공정용 증기 공급이나 수소 생산 등 전력 생산 외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차별점이 부각된다. 연료는 당구공 크기의 흑연 구



형 '페블(pebble)' 형태로, 각 페블 안에는 수천 개의 우라늄 연료 입자가 담겨 있다. 이 연료 입자들은 엑스에너지가 자체 개발한 'TRISO-X'라는 3중 코팅 기술로 보호된다. 원자로 설계 자체가 물리적 특성에 의존한 '내재적 안전(inherently safe)' 개념으로, 온도가 과도하게 올라가면 핵반응이 자연적으로 느려지며, 잔열은 추가적인 물이나 펌프 없이 방출된다. 원전 업계 일가에서 '걷어가는 안전(walk-away safe)' 설계라 부르는 이유다.

엑스에너지가 경쟁사 대비 구조적 우위를 갖는 핵심 요인은 '수직 계열화'에 있다. 지난 2월 13일 NRC는 엑스에너지의 자회사 TRISO-X에 특수 핵물질 사용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카테고리 II 연료 제조 시설 라이선스이자, 신규 원자력 연료 시설에 대한 승인으로는 약 50년만의 첫 사례다. 미 에너지부(DOE)는 2월 25일 발표한 브리핑에서 이번 승인을 두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내 원자력 연료 공급망 구축의 거대한 도약"이라고

평가했다.

이로써 엑스에너지는 원자로 설계(Xe-100)부터 독자 연료(TRISO-X) 제조·공급까지 직접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자리 잡으며 원자로 설계부터 연료 생산까지 이르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다. 회사는 S-1 등록서류에서 전 세계 SMR 시장이 2050년까지 2조 3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엑스에너지는 한국 기업들과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해 8월 엑스에너지, 아마존,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미국 내 SMR 배치 가속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최대 500억 달러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를 동원하는 한편 공급망 역량을 확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엑스에너지 원자로의 주기기 공급을 담당할 예정이며, 한국이 글로벌 SMR 공급망에서 핵심 축을 맡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IPO는 엑스에너지에게 두 번째 상장 시도다. 회사는 지난 2023년 스펙(SPAC) 합병을 통한 우회 상장

을 추진했으나 당시 시장 여건 악화로 무산된 바 있다. 그사이 엑스에너지는 2025년 한 해에만 아마존 주도로 7억 달러, 제인 스트리트 주도로 추가 7억 달러 등 총 14억 달러 이상을 조달하며 몸집을 키웠다.

엑스에너지의 창업자는 이란계 미국인 캄 가파리안(Kam Ghaffarian) 박사로, 그는 2009년 원자력 에너지의 재발명을 목표로 회사를 설립했다.

다만 기대만큼 위험도 존재한다. 엑스에너지는 지난해 재무 손실을 기록했고 아직 첫 상업용 원자로를 인도한 적이 없다. 또 가동까지 갈 길이 멀다. 결국 이번 상장은 AI 시대의 전력 수요 확대와 첨단 원전 기대 등에 업은 것이며, 실제 기업가치는 향후 규제 승인, 건설 일정, 연료 공급, 첫 프로젝트 실행 능력에 달려 있다.

editor@bostonkorea.com

이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나 종목 추천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영혼의 심터
2세, 3세들을 위한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보스턴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턴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애프터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턴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022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칼럼니스트, 목사



skyusa21@gmail.com

“돌아옴, 그리고 남아 있음!!”

“11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 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신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아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 늘과 아버지께 죄를 언약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눅 15:11-19)

이 비유는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분명하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왔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비판했다. 즉, 이 비유는 두 부류를 향한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과 그리고 ‘그들을 못마땅해하는 사람들’ 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누가 진짜 잃어버린자인가?” 라는 질문이다.

탕자의 관점에서 보면, 자유를 선택했지만,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떠남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을 말한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말한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라고 말이다. 이 말의 의미는 충격적이다. “아버지, 당신이 죽은 것처럼 생각하겠습니다.” 그는 단순히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관계를 끊고 자기 중심의 삶을 선택한 것이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에서 시작된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가

많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자 아무도 남지 않았다. 죄는 언제나 자유처럼 시작해서, 결국 결핍으로 끝난다. 눅 15:17 말씀에 “이에 스스로 돌아켜” 여기서부터가 회개의 시작이다.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이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정이다. ‘돌아옴’ 은 자격이 아니라 결단이다. 눅 15:19 말씀처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는 자격을 포기한다. 그러나 바로 그때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다.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 ‘기다림을 넘어, 달려가는 사랑’ 이다. 아버지는 매일 기다리고 있었다. 눅 15:20 말씀에 보면 “아직도 상거(거리)가 먼데...” 이것은 아버지가 늘 그 방향을 보고 있었다는 뜻이다

.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향해 마음을 두고 계신다.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중동 문화에서 아버지가 달린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행동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체면보다 아들을 선택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 이다. 하나님은 체면을 버리고 십자가까지 내려오신 것이다.

큰 아들의 관점에서 보면, 집에 있지만, 아버지와 멀리 있는 사람이었다. 겉으로는 순종하나, 속은 불평으로 가득차 있었다. 눅 15:29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말 속에는 불만이 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보상을 기대하며 일한 것이다. 큰 아들은 동생의 회복을 기뻐하지 못했다. 왜일까? 은혜를 모르면 다른 사람의 은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가장 위험한 상태는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할렐루야!!

4월 26일 - 5월 2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쥐띠 긍정적인 에너지가</p> <p>● 운수: 밝고 환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내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 금전: 그냥 받은 것이 있으면 갚으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자상정입니다. 먼저 배풀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 애정: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가가야 합니다. 상대가 사랑한다는 확신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순조롭게 진전될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8, 1일 길일, 26, 29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소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p> <p>● 운수: 미리 메모를 해놓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중요한 일을 까맣게 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 금전: 미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후에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즉흥적으로 행동하다가 손해 보기 쉽습니다. ● 애정: 안 맞는 구두를 신으면 발에 상처가 나는 것처럼 안 맞는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면 상처를 입게 됩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9, 2일 길일, 27, 30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범띠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p> <p>● 운수: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한 더 나은 세계로 가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 금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직관에 따라가 보세요. 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 애정: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합쳐집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6, 30일 길일, 28, 1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토끼띠 공간에 곡식이 가득 쌓이듯이</p> <p>● 운수: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에 노를 저어야 앞으로 쪽쪽 뿜어나갈 수 있습니다. ● 금전: 공간에 곡식이 가득 쌓이듯이 재물이 늘어나는 운세입니다. 투자와 관련해서도 좋은 기회가 들어올 것입니다. ● 애정: 내 발이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줍니다. 느낌이 오거나 끌리는 대로 간 곳에서 좋은 일이 있거나 행운이 따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7, 1일 길일, 29, 2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용띠 아낌없이 먼저 베풀어야</p> <p>● 운수: 지금 찾아온 기회를 꼭 잡아야 합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한동안은 다른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 금전: 아낌없이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지금은 돈은 나가지만 인심을 얻으면 나중에 더 큰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 애정: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너무 세게 표현하지 마세요. 배려하는 마음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8, 2일 길일, 27, 30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뱀띠 한 번 만 더 생각해야</p> <p>● 운수: 거대한 폭풍우도 시간이 지나면 그치고 날씨가 맑아지듯이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한 것도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 금전: 돈을 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과한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 애정: 같이 살면서 항상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상처주고 상처도 받으면서 사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주세요. 01, 89, 77, 65, 53, 41년생은 27, 29일 길일, 28, 1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말띠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이니</p> <p>● 운수: 내가 아는 것이 사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 금전: 현실에 맞는 지출만 해야 합니다. 기본대로 쓰다가는 큰돈이 빠져나갑니다. ● 애정: 가까운 곳에 두고도 쉽게 찾지 못해서 헤맬 수 있습니다. 본시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이니 주위를 잘 살피주세요. 02, 90, 78, 66, 54, 42년생은 26, 30일 길일, 29, 2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양띠 깨끗하게 받아들여야</p> <p>● 운수: 지레 겁먹고 몸을 사리지 마세요. 미리 걱정하면 할수록 좋은 기회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 금전: 기대했던 것만큼의 결과가 따르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하세요. ● 애정: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신은 속이지 못하니 이제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스스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깨끗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26, 1일 길일, 30, 2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원숭이띠 머지않아 좋은 기회가</p> <p>● 운수: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견주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 금전: 가끔적인 변화를 주지 말고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머지않아 좋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 애정: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주세요. 겉으로 좋게 보여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30, 2일 길일, 29, 1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닭띠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p> <p>● 운수: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상관없이 물갈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 금전: 당장의 이득보다는 믿음을 주는데 신경 써야 합니다. 사람과 사이에 쌓인 신뢰는 언젠가는 빛이 나고 결실을 맺게 됩니다. ● 애정: 새로운 것을 원한다면 과거부터 정리하세요. 현 가구를 다 빼내고 방을 비워두어야 새로운 가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05, 93, 81, 69, 57, 45년생은 28, 1일 길일, 26, 2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개띠 누구라도 귀하게 대해야</p> <p>● 운수: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아래 사람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가 누구라도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 금전: 급하게 이루려고 하지 말고 서서히 쌓아가야 합니다. 속도를 줄일수록 중요한 것이 보이고 결국 자신에게 득이 됩니다. ● 애정: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6, 28일 길일, 27, 29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돼지띠 다 뿌린 만큼 거두게 되어</p> <p>● 운수: 여러 사람의 말을 듣다보면 더 헛갈리게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자기 주관대로 밀고나가야 할 것입니다. ● 금전: 당장은 바보같이 사는 것 같고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억울해하지 마세요. 세상 이치가 언젠가는 뿌린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 애정: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과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27, 2일 길일, 28, 29일 주의.</p>

국제결혼가정선교회, 2026년 연례 모금 만찬 파티



Fundraising Dinner & Dance Hosted by Boston Chapter

Date : April 25, 2026 (Saturday) 6 PM

Chelmsford-Lowell Elks Lodge

300 Littleton Road, Chelmsford, MA 01824

Ticket : \$100.00 PER PERSON

Contact: 603-706-0419 / 978-407-7554

“ 평화의 땅, 평화의집 쉼터 구축과 2세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Sharing peace. Sharing God's blessing.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눕니다..



국제결혼가정선교 전국연합회
National Association of Inter-Cultural Family Mission

BOSTON CHAPTER
www.naicfm.org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극심한 생리통, 만성 골반통증 있다면 자궁내막증 가능성 살펴야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가임기 여성의 약 10%에서 발생되며, 심한 생리통, 골반 통증, 생리 기간 배뇨통, 난임 등의 증상으로 질병 구분이 어려워 진단까지 평균 7년 이상이 걸리는 자궁내막증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산부인과 서은주 과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진통제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심한 생리통,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이어지는 골반 통증, 해마다 증상이 조금씩 나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40대 여성이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질환으로는 자궁내막증이 꼽힌다. 이는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고 생리통과 구분이 쉽지 않아 진단까지 평균 7

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자궁 안에는 자궁내막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은 생리 주기에 맞춰 두꺼워졌다가 임신이 되지 않으면 생리혈로 배출된다. 자궁내막증은 이 자궁내막 조직이 난소와 나팔관, 복막 등 자궁 안이 아닌 다른 곳에 생기는 질환이다.

이 조직은 위치만 다를 뿐, 성질은 자궁내막과 같아 생리 주기에 맞춰 두꺼워지고 출혈이 생기는 변화를 겪는다. 자궁 안에서는 생리혈이 질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지만 자궁 밖에 생긴 자궁내막 조직은 피가 밖으로 빠져나갈 통로가 없다. 따라서 생리 때마다 염증과 통증, 장기 유착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생긴다.

자궁내막증은 일반 생리통보다 통증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생리 기간뿐

아니라 평소에도 골반 통증이 있으며, 장이나 방광 주변에 병변이 있으면 생리 기간에 배뇨통이 발생한다. 또한 자궁내막증 환자의 약 30~50%에서 난임이 동반되기도 한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산부인과 서은주 과장은 “가임기 여성 10명 중 1명 정도에서 자궁내막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평균 진단 연령은 30대 초반이지만, 최근에는 20대 초반에서도 발병이 늘었다” 며 “초경이 빠른 경우, 생리 기간이 길 경우, 생리량이 많은 경우 자궁내막증 위험이 높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서은주 과장은 “자궁내막증은 단순 생리통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진행되면 난소 기능 저하, 난임, 골반 장기 유착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며 “생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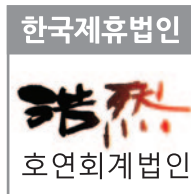
통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 진통제 없이는 생리 기간을 버티기 어려운 경우, 성관계 시 통증,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극심한 생리통, 만성 골반통증 있다면 자궁내막증 가능성 살펴야”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 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 팀장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가정의달 마음에 **정** 있어요

가정의달 행사

4월 17일 ~ 5월 17일

‘무료 배송 가능’ 
*\$300 이상 내방 구매고객 한정



JUNG KWAN JANG

에브리타임 증정

\$250 이상 구매 시,
에브리타임 3g 10포 증정
\$350 이상 구매 시,
에브리타임 3g 20포 증정
\$450 이상 구매 시,
에브리타임 3g 30포 증정

천녹류·달임액류 할인

10% 추가 할인
멤버스 ONLY
중복 적용 가능

*\$100 이상 구매 시, 보자기 포장 제공
*조기 소진 시 혜택 제공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질병을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효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균형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음용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구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스턴정관장 벌링턴 H마트 204호 (3 Old Concord Rd) 전화 : 929.600.4880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Min Oh
www.anytimeofficehours.com 코디네이터
시험 대비: ISEE, SSAT, SAT, ACT 맞춤형 전략 지도
STEM 특화: 과학경진대회 및 리서치 프로젝트 멘토링
인문 교양: 영어 글쓰기 대회 준비 및 논리적 에세이 지도
진학 준비: 대입 에세이 및 차별화된 학업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

보스톤 근교 주요 Youth Orchestra 프로그램

Youth Orchestra 활동은 수년 동안의 끈기와 꾸준함을 증명하며 팀워크, 규율, 인내심을 배우는 계기가 되어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매우 선호하는 비교과(EC) 활동입니다. 보스톤 근교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세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NEC Youth Orchestra(New England Conservatory Prep)입니다. 이곳의 오디션은 낙방보다는 실력에 맞는 단계를 찾아가는 '레벨 배정'의 성격이 강합니다. 낮은 단계부터 STO, PSO, SRO, JRO, YRO, SCO, YS, YPO 순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재즈·브라스·윈드 앙상블 등 독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리허설은 매주 토요일(1.5~2.5 시간) Jordan Hall 등에서 진행됩니다. 4~5월 중 서류와 비디오를 접수하며 5월 말~6월 초 오디션이 열립니다. 특히 8~9월 초의 자리 배정 오디션(Seating Audition)은

시즌 중 연주비중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평가로, 반 편성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학비는 시즌당 약 \$1,500 내외입니다. NEC 교수진 레슨 병행 시 소정의 할인이 있으나 폭은 크지 않으며, 전통적으로 교수진과 사사 관계에 있는 학생들이 상위 포지션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BYSO(Boston Youth Symphony Orchestras)는 보스톤 심포니(BSO) 산하의 명성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NEC와 마찬가지로 오디션은 낙방보다 실력에 따른 '레벨 배정'에 중안점을 둡니다. 대개 저학년은 NEC를 선호하다가 고학년이 되어 실력이 쌓이면 BYSO로 옮기거나, 두 곳을 동시에 응시한 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벨은 낮은 단계부터 PE, YPSO, JRO, REP, 그리고 최상위 BYS 순이며, 연습은 매주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특히 BYS는 매회 4시간의 리허설과 빈번한 드레스

리허설을 소화해야 하므로 상당한 헌신이 요구됩니다. 정기 공연은 세계 최고의 무대인 Boston Symphony Hall에서 개최됩니다.

3~4월 중 신청을 받아 5월에 오디션을 진행하며, 별도의 자리 배정 오디션 없이 리허설 중 곡마다 위치를 순환 배치합니다. PE와 YPSO를 제외한 전 단원은 8월 메인주 캠프가 필수이며, PE/YPSO는 5일간의 프리시즌을 갖습니다. 2026년 기준 학비는 약 \$6,000 안팎으로 다소 높지만, 재정 지원이 후하여 상류층 가정조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장 벤자민 잔더(Benjamin Zander)가 이끄는 Bosto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BPYO)입니다. 이곳은 단 하나의 앙상블만 운영하므로 오디션 결과가 '합격' 혹은 '불합격'으로 명확히 갑니다. 지원 대상은 12~21세이며, 연령대가 높은 만큼



어린 학생이 합격하려면 독보적인 기량이 필요합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오후 캠프리지 리허설 홀에서 진행됩니다. 특이한 교육 철학인 'White Sheet' 제도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음악적 고민이나 지휘자에 대한 피드백을 자유롭게 적어 제출합니다. 정기 공연은 보스톤 심포니 홀에서 열리며, 매년 세계 최고의 무대를 누비는 월드 투어가 BPYO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하지만 지휘자 잔더가 사비와 후원을 통해 모든 비용을 충당해 학비와 투어

전액이 무료였던 BPYO는 그의 2026년 3월 은퇴선언과 함께 2027년 유럽

공연을 끝으로 해체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마지막 단원을 뽑는 이번 오디션은 2026년 5월 8일 접수가 마감됩니다.

가장 엘리트였던 BPYO가 사라짐으로 인해 BYSO 반편성 오디션 및 활동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Rivers Youth Orchestra (RYO)나 Tufts Youth Philharmonic(TYP) 등의 옵션도 고려할 것을 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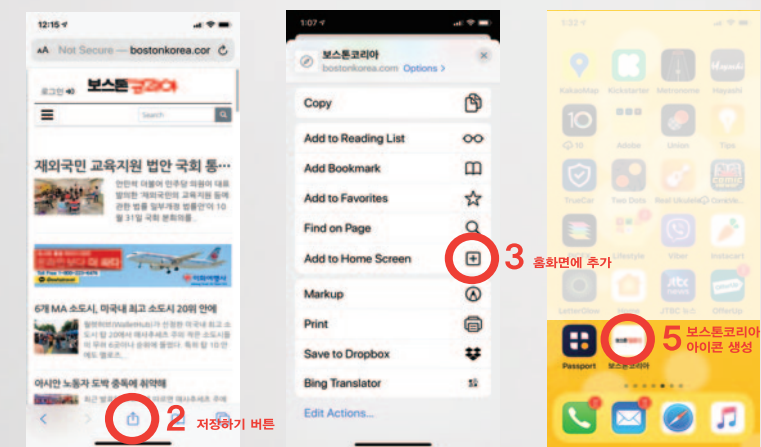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계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올스턴 스테이지 가라오케

STAGE KARAOKE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한국식 노래방, 한인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공간을 제공합니다.

THE ULTIMATE KARAOKE EXPERIENCE

The Place to Create Memories!



MAIN STAGE

- 12개의 프라이빗 룸과 하나의 메인 스테이징 라운지 (메인 스테이지는 60명 이상 수용)
- 프라이빗룸은 소형 6명에서 대형 30명까지 입장 가능
- 회사 회식(Team Building Event), 학교 및 대학 모임 등 2차로 최적
- 가족 행사, 생일 파티, 어린이 생일 파티도 환영
- 각종 주류 완비, 피자과 치킨 윙 등 음식 서비스

- 한국의 TJ 미디어, 중국산 가라오케 시스템,
- 핀란드 기반의 영어 가라오케 플랫폼 싱가 (Singa)를 함께 사용하여, 다양한 언어와 세대의 곡을 폭넓게 제공

OPEN HOURS:
 Mon. - Thur. 4PM - 2AM
 Sat. - Sun. 1PM - 2AM



PRIVATE STUDIOS

“누구나 마이크를 잡는 그 순간만큼은 주인공이다. 노래는 추억을 불러오고, 세대를 잇고,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좁힌다. 함께 노래하는 경험은 낯선 사람을 친구로 만들고, 공동체의 유대를 더욱 단단하게 한다.”
 - Henry Wong



예약: stagekaraoke.com, 617.208.8302
138 Brighton Avenue, Boston, MA 02134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의 생활, 보스톤코리아가 함께 하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구독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뉴스레터 구독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매주 2회, 최신 뉴스와 주요 소식이 담긴 뉴스레터 및 신문을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데스크탑(PC)에서 신청할 때

1. 보스톤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뉴스레터 구독>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이름, 닉네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스마트폰(모바일)에서 신청할 때

1. 모바일 브라우저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2. 페이지를 아래로 끝까지 스크롤합니다.
3. 보스톤코리아 로고 아래 메뉴 중 <뉴스레터 구독> 배너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4. 이름, 닉네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등록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약 신청 후에도 메일이 오지 않는다면, 스팸 메일함을 확인하시거나
bostonkorea.com 도메인을 안전한 발신자로 등록해 주세요.

